

# ‘돌보인 데뷔전’ 박인혁 “박수받는 선수 거듭날 것”

프로 11년 차에 첫 1부 경험  
지난 15일 개막전 선발 투입  
수원FC에 네 차례 슈팅 시도  
올해 38경기 모두 출장 목표  
광주FC는 무득점 무승부



성인 무대 11년 차에 처음 1부리그를 누비게 된 박인혁이 데뷔전에서 가장 돋보이는 활약을 펼쳤다. 하지만 번뜩이는 움직임에도 공격포인트를 올리는 데는 실패하며 광주FC가 무득점 무승부에 그친 만큼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겠다는 각오다.

박인혁은 지난 15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수원FC와 하나은행 K리그 1 2025 1라운드 홈경기에 선발 출장했다. 이날 경기 후반 33분 황재환과 교체되며 79분을 소화한 그는 팀 내 최다인 네 개의 슈팅을 시도하며 과감한 플레이를 선보였다.

박인혁은 이날 경기 후 공동취재구역에서 인터뷰를 갖고 “1부리그라는 점을 신경 쓰고 뛰지는 않았다”면서도 “자신감을 얻는 경기였다. 축구는 결국 똑같은 것을 깨달았고,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희대 2학년 재학 중이던 2015년 독일 2부리그인 2. 분데스리가 TSG 1899 호펜하임에 입단하며 성인 무대에 입성한 그는 FSV 프랑크푸르트와 FC 코페르, FK 보이보디나, 대전시티즌-대전하나시티즌, 전남드래곤즈 등을 거쳐 프로 11년



광주FC 박인혁이 지난 15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수원FC와 하나은행 K리그1 2025 1라운드 홈경기에서 드리블을 시도하고 있다.

자를 맞았지만 1부리그 경험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인혁은 “K리그1이라고 해서 더 특별한 느낌은 없었다”면서도 “경기를 뛰면서 체력적으로 더 올라와야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박인혁이 개막전에서 선발로 투입될 수 있었던 데는 빠른 발을 댄 노력이 뒷받침됐다.

이흥실 감독과 황선홍 감독, 이민성 감독 등 여러 지도자 아래에서 굳어졌던 게 이른 천재, 트러블 메이커 등 부정적인 인식을 뒤집기 위해 이정호 감독 지도 아래에서 완전히 새로운 선수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그는 “이정호 감독님께서 축구를 잘해야 한다는 말씀은 하지 않으신다. 제가 가진 좋은 습관들에 대해 항상 말씀하신다”며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경기 외적으

로 문제를 일으키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온 좋게 개막전 선발이라는 기회가 왔다. 더 보완해야 더 기회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선수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마음가짐 역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개인보다는 팀을 먼저 생각하고, 베테랑이지만 1부리그는 처음인 만큼 신인의 자세를 취하겠다는 다짐이다.

박인혁은 “저는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

기 때문에 항상 낮은 자세로 배우려고 한다”며 “팀으로서 모두가 같은 목표를 향해 가야 한다. 동료들이 잘 도와주고 있어서 잘 따라가고 있고,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많이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인혁은 전반 4분 이민기가 전진 투입한 공을 뒤꿈치로 돌려놓는 센스를 선보였고, 이 패스는 문민서의 일대일 기회까지 연결됐다. 이어 전반 35분에는 우측면 어려운 각도에서 과감하게 중거리슈팅을 시도하며 이정호 감독의 박수를 이끌어 냈다.

그는 “뒀 공간을 창출해서 빠져 다니거나 일대일 돌파를 좋아한다. 이런 장면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잘 준비하겠다”며 “개막전이고 K리그1 데뷔전이기에 때문에 제게는 특별한 경기였다. 더 열심히 뛰었고 골도 넣고 싶었는데 마무리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복기했다.

박인혁의 말대로 광주FC가 주도권을 쥐었음에도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박인혁은 후반 3분 과감한 슈팅을 시도했으나 수비벽에 막혔고, 후반 21분에는 상대 실책으로 결정적인 기회를 맞았으나 다시 수비벽에 막히며 득점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그는 “확실한 기회를 놓친 부분에 대한 죄송함과 책임감이 있다. 팀에 60% 정도 더 녹아든 것 같은데 더 집중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며 “공격포인트를 목표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올해는 많은 경기에 나가는 것이 목표다. 선발이든 교체든 38경기를 모두 출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 ‘전두환 사진 도발’ 산동 타이산 아시아축구연맹 징계 불가피

관련 관중에 영구 출입 금지  
“일부 팬 부적절 행동 사과”

5·18민주화운동, 남북관계와 관련 몰상식한 도발에 산동 타이산이 성명을 발표하며 빠른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정치적 메시지와 도발 행위 금지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만큼 아시아축구연맹(AFC) 차원의 징계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산동 타이산은 지난 14일 구단 공식 웨이보를 통해 성명을 내고 “일부 팬들의 행동에 대해 깊은 충격을 받았다”며 “상황을 즉시 공간에 보고한 뒤 조사에 협조했다. 공간은 관련 관중들을 즉시 법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FC는 지난 11일 중국 산동성 지난 올림픽 스포츠 센터에서 산동 타이산과 2024-2025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리그 스테이지 동아시아 7차전을 치렀다.

이날 경기 중에는 특별한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으나 뒤늦게 사회관계망서비스 및 국내외 해외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일부 산동 타이산 팬들이 원정석을 향해 고전두환씨와 김일성 북한 주석, 김정 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진을 흔들며 보여 인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사진)

이를 인지한 광주FC는 광주시를 넘어 한국 전체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AFC에 경기장 내 정치적 메시



지 및 도발 행위를 금지한 규정 위반에 대해 공식 항의 서한을 제출해 산동 타이산과 팬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산동 타이산은 “우리 구단은 질서를 지켜 경기를 관람하고 상대를 존중한다. 관중들의 규정 위반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며 “일부 팬들의 행동은 구단과 팬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 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해당 관중들의 경기 관람을 영구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산동 타이산이 추태를 부린 관중에 대해 빠른 조치에 나섰다지만 AFC 차원의 징계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고, 광주FC도 이에 대해 공식 항의 서한을 접수한 상황이다.

산동 타이산은 “벌금 등 AFC의 징계가 내려질 경우 우리 구단은 법적 조치를 통해 해당 관중들에 경제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광주FC가 보여준 경기력과 스포츠 정신에 대해 존중한다. 일부 팬들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전했다.

한규빈 기자

## 목표 초과 달성한 태극전사, 금의환향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金 16·銀 15·銅 14... 종합 2위  
아바쿠모바 영광의 귀국 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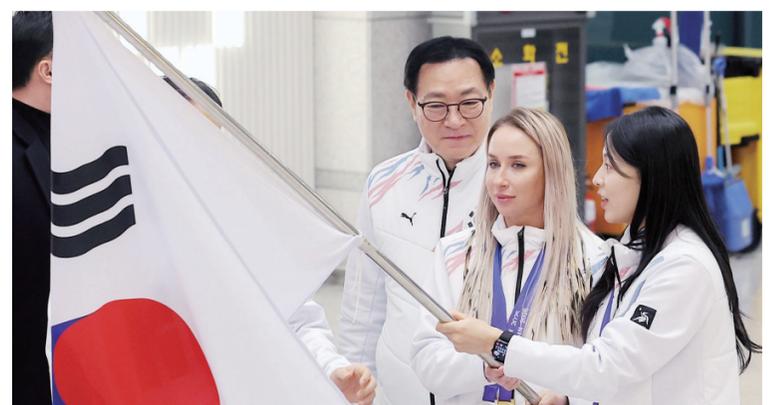
8년 만에 열린 아시아 최대 규모 겨울 스포츠 축제가 막을 내린 가운데 목표인 금메달 11개를 훌쩍 뛰어넘으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 청신호를 쏜 태극전사들이 금의 환향했다.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한국 선수단 분진 80여명은 지난 1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직후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주최한 환영 행사에 참석했다.

한국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6개와 은메달 15개, 동메달 14개를 획득하며 종합 순위 2위에 올랐다. 2017 삿포로 동계 아시안게임에 이어 동계 아시안게임 최다 금메달 타이 기록이다.

‘푸른 눈의 태극전사’ 예카테리나 아바쿠모바(전남도체육회)는 이번 대회 폐회식에 이어 귀국 환영 행사에서도 컬링의 김민지(경기도청)와 함께 기수를 맡는 영예를 안았다. 아바쿠모바는 선수단을 대표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꽃다발을 수여받았다.

러시아 출신 귀화 선수인 아바쿠모바는 바이애슬론 여자 7.5km 스프린트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한국 바이애슬론 사상 최초의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어 바이애슬론 여자 24km 계주에서



한국 바이애슬론 국가대표팀 예카테리나 아바쿠모바(가운데)가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이 막을 내린 지난 1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극기를 들고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는 고은정(전북도체육회), 아베 마리아, 정주미(이상 포천시청)와 은메달을 합작하며 한국 바이애슬론 사상 최초 아시안 게임 멀티 메달 주인공에 등극했다.

아바쿠모바는 인터뷰를 통해 “목표는 오로지 금메달뿐이었다. 굉장히 기분이 좋다”며 “애국가를 들으며 힘든 시간이 더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금메달로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고, 흥분한 느낌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쉽지 않았지만 올림픽 메달이 다음 목표다. 이번 대회 성과를 통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올림픽을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이렇게 국제 대회에서 수상할 수 있는 기회를 준 한국에 너무나 감사하다. 저를 잊지 않아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규빈 기자

| 순위 | 국가     | 합계          |
|----|--------|-------------|
| 1  | 중국     | 32 27 26 85 |
| 2  | 한국     | 16 15 14 45 |
| 3  | 일본     | 10 12 15 37 |
| 4  | 카자흐스탄  | 4 9 7 20    |
| 5  | 필리핀    | 1 0 0 1     |
| 5  | 우즈베키스탄 | 1 0 0 1     |
| 7  | 북한     | 0 1 0 1     |
| 8  | 대만     | 0 0 1 1     |
| 8  | 태국     | 0 0 1 1     |

연합뉴스 자료: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